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8. 6.(목)	사진 · 영상	사진(○), 영상(×)
보도일자	2026년 8월 6일(목)부터		
담당부서	의사입법담당관 정책팀	담당자	김인주 사무관(044-300-7321)
			유재한 주무관(044-300-7322)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 참석

-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전국 시·도의회 힘 모은다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은 5일부터 6일까지 세종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정기회'에 참석해 전국 광역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쳤다.

정기회 첫날인 5일에는 본 행사에 앞서 지역균형성장과 행정수도 완성을 주제로 한 사전 논의가 이어졌다. 서울, 전남광주,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제주 등 9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세종시의회를 찾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고, 참석자들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에 함께 전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진 정기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주관했으며,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단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개회식을 시작으로 간담회, 본회의, 현안 토론 및 만찬 등의 일정으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본회의에서는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요 업무 보고' 1건이 보고 안건으로 접수돼 그간의 추진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이 공유됐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제20대 전반기 회장 선출의 건 ▲제20대 전반기 임원 선임의 건 ▲차기 회의일정 결정의 건 등 총 3건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최종 의결됐다.

본회의에는 조상호 세종시장도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에게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행정수도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각 시·도의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안신일 의장은 "행정수도의 상징성을 지닌 세종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님들을 모시고 제20대 전반기 지도부를 구성하는 뜻깊은 정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의의가 있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전국 광역의회가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회의 자치권과 독립성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첫걸음이자,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라며 "전국 시도의회가 함께할 때 그 힘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장은 또 "2026년은 실질적인 자치분권 확립과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이뤄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세종시의회 역시 대한민국 시도의회장협의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광역의회 간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